단기자금 거래증권사 현황

단기자금 (2020. 1분기 말 기준)

경남은행, 광주은행, 교보증권, 대구은행, 대신증권, 메리츠종금증권, 미래에셋대우증권, 부국증권, 부산은행, 비지씨캐피탈마켓외국환중개, 삼성증권, 상상인증권, 서울외국환중개, 수협은행,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씨티글로벌마켓증권, 우리은행, 우체국, 우리종합금융,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전북은행, 제주은행, 카카오페이증권, 케이프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크레디아그리콜은행, 크레디아그리콜 아시아증권, 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한국자금중개, 한국증권금융, 한국씨티은행, 한국투자증권, 한양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홍국증권, BNK투자증권, BNP파리바, CS증권, DS투자증권, DB금융투자, IBK기업은행, IBK투자증권, JP모건체이스, KB국민은행, KB증권, KDB산업은행, KEB하나은행, KIDB자금중개, KIDB채권중개, KTB투자증권, NH농협은행, NH투자증권, SC은행, SK증권

[비고]

- 총 기 관 수 : 63
- 신규기관 명 : -
- 제외기관 명 : -
- 사명변경기관 : 바로투자증권 → 카카오페이증권, RBS아시아증권 → 크레디아그리콜 아시아증권